

노자 사상으로 본 한국 다문화사회의 갈등 원인과 대안

장지혜
(세명대학교)

1. 서론
2.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현황
3. 『도덕경』속 이상적 인간상으로 본 한국 다문화사회의 갈등해결사
4. 『도덕경』속 ‘善’의 의미로 본 ‘聖人’과 갈등해결사로서의 리더쉽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 사회의 갈등의 원인과 종류를 살펴본 후 『도덕경』속에 나타난 노자의 사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이나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같은 갈등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해하였다. 둘째, 기존의 철학적 관점에서의 다문화사회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 전체가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의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중심에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갈등해결사 모델로 『도덕경』속에서 이상적 리더쉽으로 제시된 ‘聖人’과 ‘善’의 의미 분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는 정치나 행정의 집행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및 정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 갈등원인, 다문화사회 갈등해결방안, 갈등해결사, 노자사상

1. 서론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소득 불균형과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 확대되어 가는 등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외국 인력과 문화들이 유입되며 교류에 따른 성장과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문화적 갈등도 겪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체류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기준 4.37%(약 224만 명)로 한국은 곧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2023).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민자 사회통합 및 국민의 역할별 문제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범죄 문제 등 다문화사회에서의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들이 더욱더 발생할 것이다.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서 ‘다문화사회 문제’ 및 ‘다문화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검색어로 국내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한 결과 각각 36편과 총22편이 있었다.¹⁾ 그동안 다문화사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책이나 제도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었으며, 사회문화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철학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동양사상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승표(2008)는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며 문화 간의 편견과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세계관적 차원에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유교 사상에서

1) 다문화사회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국내학술논문은 정책적 해결 15편, 교육적 해결 6편, 통합모델개발 2편, 종교적 해결 5편, 소통방식개발 1편, 윤리적 가치실현 1편, 철학사상의 교육실현, 사회통합과 사상이 각각 1편, 철학사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4편이었으며, 학위논문은 가정·아동 관련 4편, 공공의 문제 1편, 사회통합정책 및 관련 정책 8편, 교육으로 문제 해결 2편, 공감·소통 2편, 사회적응문제 3편, 종교적 해결 2편 등이었다.

찾으려고 하였다. 이현지(2013)는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과 『周易』 속 ‘정(鼎)’괘의 세계관을 분석한 후 구체적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김창경(2016)은 한국사회에서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민들과 내국인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을 상호 간의 소통과 융합의 문제로 보고 해결책의 하나로 다문화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 양식의 준거를 유가의 『大學』에 나오는 “형구지도(絜矩之道)”를 통해 유가철학의 예(禮)실천 방법이 현대 사회에서 상호 소통하고 융합하는 행동 양식의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현우·이미림(2017)은 한국의 주류적 전통 가치관인 유교의 ‘화(和)’와 ‘대동(大同)’ 그리고 가정 윤리로서의 ‘효(孝)’를 추론하여 다문화사회 모델을 제시하고 다문화 사회 내 문제 해결에 대해 연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철학·사상으로 다문화사회의 문제나 해결 방안을 찾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가 사상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파악하여 다문화사회 모델을 파악하거나(이현지, 2013; 김현우·이미림, 2017), 해결 방안을 유교적 인간관과 정신에서 찾아 이를 통해 조화로운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홍승표, 2008), 『周易』에서 세계관을 찾고 사상의 중심에 있는 ‘和’사상을 사회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연구(이현지, 2013)였다. 주로 전체 사회가 가져야 할 정신적인 부분을 탐구하고, 탐구된 정신을 전체 사회가 가지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의 차별점은 기존 연구가 한국 사회 전체가 가져야 할 정신에 대해서 논했다고 한다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갈등의 원인 탐구와 함께 『도덕경』 속에서 제시된 이상적 리더십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일하는 정치, 행정적 집행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 및 정신에 대해 초보적 탐색을 해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사회의 갈등의 종류를 살펴본 후 『도덕경』 속의 노자 사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이나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같은 갈등들의 발생 원인에 대해 이해한다. 그리고 『도덕경』 속에서 제시된 이상적 리더십과 ‘善’의 의미를 통해 다문화사회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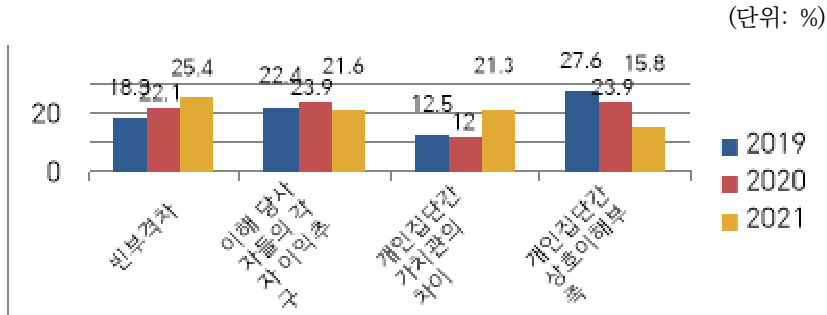
2.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현황

2021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차지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55.1점으로 69점인 멕시코, 56.5점인 이스라엘에 이어 3위였다. 5위인 일본(46.6)과 6위 미국(43.5)과 비교했을 때 10점 정도 차이가 났으며, 가장 낮은 국가인 핀란드(13.1)와는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 지수’는 46.2점으로 27위였는데,²⁾ 이 지수는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과 같은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의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갈등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갈등의 유형 1-3위는 보수와 진보(4점 만점에 3.1점), 빈곤층과 중/상층(3.0점), 근로자와 고용주(2.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위의 갈등유형은 예년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있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 인식 수준(2.6점)은 전년에 비해 0.1점 상승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은 2018년 전년에 비해 0.1점 상승한 2.6점이었다가 코로나19를 겪으며 2.5점으로 하락한데서 다시 상승한 것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감과

2) 갈등지수는 정치(정부의 의사결정에서의 비효과정인 실행평가, 언론자유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지니계수 등), 사회문화(인구이질성, 인구 구조적 스트레스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0~100점으로 표준화한 수치이다. 갈등관리 지수 산출은 행정과 제도 영역에서 정부 효과성, 규제의 질적 수준, 부패규제 등 4개 항목이 활용되었으며, 0~100점으로 수치를 나타낸다. ‘갈등지수’ 수치와 순위와 관련해서는 정영호·고숙자(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겨레, 한국 ‘갈등 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인구밀집도는 심각. (검색일: 2023.05.19.),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8235.html에서 요약하였다. 또한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서술한 이유는 OECD 국가에 대한 비교와 같이 다양한 국가와의 비교를 하는 가장 최근 자료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까지 사회갈등을 다루는 기사에서도 예를 들어 2019년 2월 20일 Ipsos의 「한국사회갈등 현황 및 통합을 위한 정부의 과제」나 전경련이 2021년 8월 19일 발표한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등의 자료에서도 2016년을 가장 최근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안정세로 접어들며 한국으로 진입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한 갈등 정도도 심화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73에서 필자 재정리.

〈그림 1〉 2019-2021년 사이 사회갈등 원인 인식 1-3위 비교

또한 한국 국민들은 사회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빈부격차(25.4%)를 뽑았으며, 이해당사자들의 각자의 이익 추구(21.6%), 개인, 집단 간 가치관 차이(21.3%), 개인, 집단간 상호이해 부족(15.8%)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뽑았다.³⁾

위의 〈그림 1〉은 2019년과 2021년 사이 사회갈등 원인 인식 조사결과와 1~3위까지를 나타낸 것이다. 빈부격차가 원인이라는 인식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3-4%로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집단간 가치관의 차이는 2019년·2020년과 비교해 2021년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은 빈부격차가 사회갈등 중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증가율로 봤을 때는 개인/집단 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향후 주된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의 이해 추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1년에 약

3) 2022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가장 최근인 2021년 기준으로 작성함. 한국행정연구원(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검색일: 2023.05.22.)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

간 감소하긴 했어도 매년 비슷한 수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개인집단간 상호이해 부족은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3.7%,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8.1%로 매년 약 2배 정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부격차나 개인/집단 간 가치관의 차이, 이해당사자간의 각자의 이익추구 문제는 내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외국인 모두에 해당되는 사회갈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다양하며, 이러한 갈등은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 차이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차이는 언어, 종교, 관습, 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 상호 불신, 인종차별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민자나 소수 민족 집단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경제적인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거나 불공평하게 분배될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인종차별과 편견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종종 인종차별과 편견이 존재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과거의 역사적인 민족 갈등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 인종차별과 편견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조화를 해칠 수 있다. 넷째, 정치적 요인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민정책, 국적 및 시민권 문제, 다양한 문화 집단의 정치적인 요구 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의견의 충돌과 갈등은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다섯째, 교육 및 언어 문제이다. 다문화사회에서는 언어와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나 소수 민족 집단들은 언어적으로 소외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기회의 부족과 문화적인 이해 부족을 발생시킨다.

노자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갈등의 원인은 인간들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한다. 『도덕경』 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www.kci.go.kr

고집하여 채우는 것은 그만 두느니만 못하다. 때려서 끝을 날카롭게 하면은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부귀하되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얻게 된다. 공(功)을 이루면 몸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하늘의 도(道)다.⁴⁾

노자는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가지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데, 즉,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왕필(王弼)은 이에 대해 “견지해 나가는 것(持)은 德을 잃지 않음을 말한다. 이미 그 德을 잃지 않았는데, 또 그것을 채우니 형세(勢)가 반드시 기울어지고 위태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버리느니만 못하다.”라고 역시 ‘德’을 잃지 않고 있는데, 얻으려고 한다면 기울어지고 위태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왕필은 “이것을 일러 다시 덕이 없고 공(功)이 없느니만 못하다고 한다. 이미 끝을 쳐서 뾰족하게 한 다음 다시 날카롭게 하여 날이 서게 하니 형세(勢)가 반드시 꺾일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보존할 수 없다. 버리느니만 못하며,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사시(四時)가 번갈아 운행하니 공(功)이 이루어지면 곧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끝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갈등의 원인은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본 빈부격차나 이해당사자들의 각자의 이해 추구라는 것도 사실상 인간의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자는 ‘도를 깨달은 자’의 모습을 말하며 욕망에 대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욕심을 부리지 않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도 사회가 변화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나 갈등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4) 『老子』〈九章〉, 持而盈之, 不如其已. 揣而稅之, 不可長保. 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 功遂身退, 天之道.

3. 『도덕경』속 이상적 인간상으로 본 한국 다문화사회의 갈등해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사회통합지수개발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이스라엘 다음으로 사회통합지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수치는 1995년(0.26) 이후 20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이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거나(82.5%), 서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생긴다(74.7%)고 보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는 공동체 유대감을 통해 갈등이슈 해결(81.0%)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한 중심 주체를 국회나 정부로 보고 있으며, 사회갈등 해소 주체에 대해서도 국회(21.3%), 정부(20.9%)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언론(11.4%)이나 교육계(10.9%)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나 정부를 사회갈등의 해소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회 각 집단의 사회갈등 해소 노력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1-5점 척도의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계(3.5점)가 갈등 해소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시민단체, 정부, 종교단체, 기업, 언론이 각각 3.2점, 노동조합단체, 법조계가 각각 3.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집단은 국회(3.0점)로 2016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여러 사회주체들이 있지만 갈등지수는 상위권에 있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58%)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사회갈등 책임자로 국회 92%, 언론 89%, 중앙정부 85%로 나타났다(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21).

그렇다면 국민의 생각에서는 사회통합과 축적되고 있는 한국내 구조적 측면에서의 빈부격차나 개인의 인식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의 조정을 국회나 정부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향후 더욱 큰 갈등을 가져올 것이고 국회나 정부는 신뢰를 주는

모습으로 그 갈등에 대한 조정이나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범적 사회통합 및 사회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나 집단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사회갈등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며,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특정 논리나 규범들이 대부분의 사안의 시비에 대해 사회전체구성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기는 힘들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많거나 공공의 갈등 해결은 더욱 그러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은 소득불평등이나 인종 다양성과 같은 구조적 갈등을 더욱 많이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이러한 갈등은 완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스템의 작동과 관리는 인간이 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에 대한 해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갈등 양측에 있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정치가일 수도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2500년도 더 된 춘추시대 노자는 혼란스럽고 타락한 현실사회와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상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노자는 이상적인 인간에 대해 ‘聖人’이라 하였다. 聖人の 정의와 관련해서는 개념 정의는 없으나, 노자가 말하는 ‘聖人’에 대해 박원재(2004, 28)는 자연의 본성과 하나 된 인간으로 도(道)를 체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 천지 만물에 대해 피해를 주지 않는 인간이며, 공적이고 보편적 이익과 이치에 부합하는 인간이라고 하였다. 이재권(2022, 8)은 성인의 성격을 분석해 어떤 인물인지 추론해보면 ‘明觀’으로 도를 깨달은 사람이 聖인과 賢者(賢人)이고, 노자가 생각하는 깨달은 사람은 기존의 부조리한 현실사회와 그 속에서 타락한 인간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 부정과 비판을 하며 앞의 모든 것을 극복한 새로운 인물이라고 한다. 이재권(2022: 8-9)은 도를 깨달은 사람을 성인과 현자로 나누었

으며, 성인은 통치자로, 현자 혹은 현인을 사회의 지도자라 구분하였다. 앞서 말하는 성인(또는 현인이나 현자)은 공적이고 보편적 이익과 이치에 부합되며, 기존의 부조리한 현실사회나 타락한 인간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부정·비판할 수 있기에 사회문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노자는 타락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도덕경』 55장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있다.

큰 덕을 품이 두터운 자는 갓난아이와 같다. 별, 전갈, 뱀이 쏘지 아니하고 맹수가 범하지 아니하며 맹금류가 잡아채지도 않는다. 뼈가 약하고 힘줄은 부드럽지만 견고하게 쥐고. 압수의 교합을 알지 못하나 온전하게 자라나니, 정기가 지극하다. (그리하여) 하루종일 울어도 목이 잠기지 않고, 화해의 지극함이다. 화해함을 알면 (이를) 항구하다고 하고, 항구함을 알면 (이를) 밝음이라 하고, 생을 더해가는 것을 일러 상서롭지 못함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하여금 기를 쓰게 하는 것을 억지스럽다 한다. 사물이 장성해서 곧 쇠약해지는 것, 이것은 도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일찍 끝나게 된다고 말한다.⁵⁾

왕필(王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갓난아이는 구함도 바람도 없으니 사물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을 쓰는 생물도 사람을 범하지 않는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는 외물을 범하지 않으니, 사물로 인해 그 온전함을 잃게 됨이 없다. 부드럽고 약하기에 견고하게 질 수 있다. 作은 자라남이다. 사물로 인해 자신의 몸에 해를 입히지 않으니,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다. 덕을 품음이 두터운 자는 사물로 인해 자신의 덕에 해를 입어 그 참된 본성을 잃게 되지 않는다. 부드럽고 약한 자는 다투지 않고 꺾이지 않음은 모두 이와 같은 이치이다. 욕망을 다투는 마음이 없으니, 종일토록 소리를 내어도 목이 잠기지 않는다. 사물은 화해함으로서 항구할 수 있으니, 화해함을 알면 항상됨을 얻게 된다.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따스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이것

5) 『老子』〈五十五章〉, 含德之厚, 比於赤子。蜂虿虺蛇不螫, 猛獸不據, 攫鳥不搏。骨弱筋柔而握固, 未知牝牡之合而全作, 精之至也。終日號而不嗷, 和之至也。知和曰常, 知常曰明, 益生曰祥, 心使氣曰強。物壯則老, 謂之丌道, 丌道早已。

이 항구함이다. 형체가 없어서 볼 수 없으므로, 항구함을 알면 (이를) 밝음이라 한 것이다. 생은 더할 수 없으니, 생을 더하면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마음은 마땅히 무위한 것인데, 기를 쓰게 하니 억지스럽게 된다”.⁶⁾ 노자는 어린아이의 특성으로 성인을 말하고 있는데, 억지로 구하려 하거나 바라지 않으니 사물을 해하지 않는다. 또한 부드럽고 유연하여 자신도 해를 입지 않고, 욕망으로 다투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영원히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상호간 어울리며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노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늘의 도는 아마도 활을 당기는 것 같도다! 높으면 눌러주고, 낮으면 들어준다. 남는 것이 있는 자에게서 덜어내고, 부족한 것이 있는 자에게 보탠다. 하늘의 도는 남을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에 보탠다. 하지만,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부족한 것을 덜어서 남는 곳에 봉양한다. 누가 남는 것으로써 세상을 봉양할 수 있는가? 오직 도를 지닌 자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겸하지 않고, 그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고자 한다.⁷⁾

왕필(王弼)은 이에 대해 “천지와 그 덕을 같이하니 곧 천도와 같이 만물을 끌어안을 수 있다. 사람의 역량은 각각 그 몸이 있으니 서로 균등하지 않다. 오로지 몸도 없고 사사로움도 없어야만 하는가? 스스로 그러한 이후에야 이내 천지와 그 덕을 같이할 수 있다. 가득 찬 곳에 처하여 텅 빔을 온전히 하고, 있는 것을 덜어내어 없는 것에 보태고, 빛을 누그러뜨려 풍진의 세상과 함께 하고, 널리 두루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도를 가진 자뿐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그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

6) 王弼, 『老子注』 五十五章, 赤子, 無求無欲, 不犯衆物, 故毒(蟲)[螫]之物無犯(之)[於]人也. 含德之厚者, 不犯於物, 故無物以損其全也. 以柔弱之故, 故握能周固. 作, 長也. 無物以損其身, 故能全長也. 言含德之厚者, 無物可以損其德逾其真. 柔弱不爭而不摧折, 皆若此也. 無爭欲之心, 故終日出聲而不嘎也. 物以和爲常, 故知和則得常也. 不皦不昧, 不溫不涼, 此常也. 無形不可得而見, [故曰, 知常]曰明也. 生不可益, 益之則夭也. 心宜無有, 使氣則強.

7) 『老子』 〈七十七章〉, 天之道, 其猶張弓與! 高者抑之, 下者舉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以奉有餘. 孰能有餘以奉天下? 唯有道者. 是以聖人爲而不恃, 功成而不處, 其不欲見賢.

고자함으로써 세상을 공평하게 한다.”라고 주를 달았다.⁸⁾ 즉, 사람의 역량은 각각 다르며 서로 균등하지 않으며, 있는 것을 덜어내고 없는 것을 보태어 균등하게 하고 세상에 널리 두루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도를 가진 자라고 하였다. 조화롭게 살아가고 남을 해치지 않는 마음을 가졌으며, 두루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道’를 깨달은 ‘聖人’으로 오늘날 갈등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도덕경』속 ‘善’의 의미로 본 ‘聖人’과 갈등해결사로서의 리더십

노자는 “높은 경지의 ‘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물과 같다”라고 말하며 ‘聖人’을 물에 비유하였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며,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여 늘 가까이서 물의 변화과정을 쉽게 살펴볼 수 있어 물로 예를 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경지의 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 것에 뛰어나지만 그 만물과 다투지 않으며, 못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道에 가깝다. (높은 경지의 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善地)에 머물고, 마음은 연못(善淵)처럼 깊으며, 사귀는 물처럼 어질며, 말하는 것은 물처럼 믿음직스럽고, 정치를 하는 것은 물처럼 잘 다스려지며, 일을 처리함은 물처럼 못하는 것이 없이 잘하며, 움직임은 물처럼 시기(善時)를 잘 맞춘다. 오직 다툼이 없기 때문에 허물을 받음이 없다.⁹⁾

8) 王弼, 『老子注』五十五章, 與天地合德, 乃能包之如天之道. 如人之量, 則各有其身, 不得相均. 如惟無身無私乎? 自然, 然後乃能與天地合德. 言(唯)[誰]②能處盈而全虛, 損有以補無, 和光同塵, 蕩而均者? 唯(其)[有]道[者]也. 是以聖人不欲示其賢, 以均天下.

9) 『老子』〈八章〉,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居善地, 心善淵, 與善仁, 言善信, 正善治(a), 事善能, 動善時. 夫唯不爭, 故無尤.

노자가 말하는 ‘上善’은 『도덕경』 제1장의 ‘無欲(일부러 일삼고자 하는 바가 없음)’ 내지는 제2장의 ‘無爲(일부러 일삼는 바가 없음)’를 상징한다. 높은 경지의 ‘善’은 ‘물(水)’과 같지만 ‘도(道)’는 아니다. 물은 하늘부터 땅까지 모두 존재하지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떤 곳에든 담기고 들어갈 수 있으며 물의 이러한 유연성이 세상 만물의 형체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게 한다. 물은 없으면 살기 힘들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마치 높은 경지의 ‘善’을 지닌 사람과 닮았다. ‘善’이 물과 같다는 것은 바뀔 없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에 ‘道’에 가깝다고 하였다. 왕필은 “사람들은 낮은 곳을 싫어한다(人惡卑也)”라고 하며, 물의 낮은 곳으로 향하는 속성으로 진정한 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왕필주에서 ‘惡卑’, 노자의 ‘不爭’과 ‘處’에 대한 부정으로 다투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도덕경을 해석해 보면 ‘不爭(다투지 않는다)’한다는 것은 ‘이롭게 함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과 ‘그 공을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좋은 곳에 가려고(흐르려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善’은 ‘물’처럼 차별 없이 흐르기에 ‘道’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머무름으로서 ‘도’에 가까운 것이다. ‘道’라는 것은 『도덕경』 제1장에 대한 왕필주에 따르면 ‘無形無名(특별히 정해 부를 ‘형상’이나 지어 붙일 ‘이름’이 없음)’이지만, 물은 ‘有’로 ‘道’와는 반대로 정해 부를 ‘형상’이나 지어 붙일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道’와 ‘水(물)’을 같은 것이 아니라 ‘물’이 ‘道’에 ‘幾(가깝다)’라고 한 것이다.

왕필주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이러한 ‘물’의 속성에 비유한 ‘道’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善’은 옳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여기서는 ‘道’에 가까워지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 ‘땅(地)’이라는 것은 가려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연못처럼 깊다는 것은 나눌 수 있는 ‘善’이 있는 것이며, 사킴에 있어 어질다는 것은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말

한다. ‘善’은 사람에 따라 말을 달리하지 않고, 잘 다스리며, 일을 제대로 하고, 때에 맞게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서의 7가지 ‘선’의 형태는 ‘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무릇 다툼이 없으면 허물이 없다(夫唯不爭，故無尤.)’는 것은 ‘땅’이나 ‘물’처럼 순리대로 산다면 다툼이 없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허물을 만드는 존재이지만, 왕필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쟁하지 않는 ‘물’과 같은 ‘선’을 행한다면 ‘도’가 있게 되는 것 “물은 모두 이도에 부응함을 말하는 것이다.(言(人)[水]皆應於(治)[此]道也)”이다.

그렇다면 물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道’에 가깝다고 한 것인가? 제28장에서는 ‘물’이 흘러 이르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며, ‘善’과 ‘德’ 그리고 ‘道’를 설명하고 있다.

雄의 뜻을 알고, 雌의 뜻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천하의 계곡은 영원한 德을 떠나지 않으며 어린아이에게도 다시 돌아간다. 雄은 앞서서 부류이고, 雌는 뒤에 서는 부류이다. 천하에서 앞서서 서는 것들은 반드시 뒤처지게 됨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그 몸을 뒤에 두지만 몸이 앞선다. 계곡은 사물을 구하지 않지만 사물이 자연히 모여든다. 어린아이는 지혜를 쓰지 않지만 自然의 지혜에 융합한다.¹⁰⁾

‘계곡’ 즉 ‘선’과 같은 ‘물’이 흐르는 곳은 무언가 인위적인 것을 행하지 않고, ‘德’을 떠나지 않으며, 앞서 말한 자연스레 인간들이 가기 싫은 곳에 이른다는 것이다. 노자는 ‘도’와 같은 ‘물’의 속성 중 생명 존속의 가치와 관련 ‘물’은 만물 중에서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柔弱勝剛強)’를 가장 잘 체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도덕경』 43장에 따르면 ‘기(氣)’나 ‘물(水)’은 ‘허무유약(虛無柔弱)’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지극히 부드러움이 세상의 지극히 견고함을 타고 다니고, 무와 유가 간극이 없는 경지에 들어서니, 나는 이로써 무위의 유익함을 안다. 기

10) 『老子』〈二十八章〉, 知其雄, 守其雌, 爲天下谿. 爲天下谿, 常德不離, 復歸於嬰兒. 雄, 先之屬. 雌, 後之屬也. 知爲天下之先(也)[者]必後也.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也. 谿不求物, 而物自歸之. 嬰兒不用智, 而合自然之智.

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물은 다니지 못하는 곳이 없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과 부드럽고 연약함은 통하지 않음이 없다. 무는 다할 수 없고, 지극히 부드러움은 꺾을 수 없다. 이로 유추하자면, 무위의 유익함을 알 수 있다. 말 없는 가르침, 무위의 유익함에 이르는 자는 세상에 드물다.¹¹⁾

허무유약한 것은 통하지 않는 곳이 없고, 이를 수 없는 것이 없다. 가장 부드러운 것은 꺾을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무위의 이로움이다.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으나, 딱딱하고 굳은 것을 공격함에 물을 이길 수 없다. 물을 사용함에 어떤 것도 물을 대신할 수 없다. 이는 사용한다는 뜻이다. 其는 물을 가리킨다. 물의 부드럽고 연약함을 사용하니 어떤 사물도 물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말한다. 연약함이 딱딱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음을 이긴다는 것은, 천하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나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성인은 이렇게 말한다. 나라의 더럽혀짐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직의 주인이라 일컫고, 나라의 상서롭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세상의 왕이라고 일컫는다. 바른 말을 오히려 반대로 한 것 같다.¹²⁾

즉, 물은 하늘부터 땅까지 모두 존재하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가지 못하는 곳이 없으며, 어디든 유연성을 가지고 세상 만물의 형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물은 없으면 살기 힘들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러한 물과 같음을 체득한 사람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과 유연하게 소통하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위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며, 항상 낮은 곳에서 나서지 않으며 겸손하게 행동하기에 신뢰를 가지고 그를 따를 것이다.

11) 『老子』〈四十三章〉,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有無入無間, 吾是以知無爲之有益. 氣無所不入, 水無所不(出於)經. 虛無柔弱, 無所不通. 無有不可窮, 至柔不可折.* 以此推之, 故知無爲之有益也. 不言之教, 無爲之益, 天下希及之.

12) 『老子』〈七十八章〉, 天下莫柔弱於水, 而功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 以, 用也. 其, 謂水也. 言用水之柔弱, 無物可以易之也. 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是以聖人云, 受國之垢, 是謂社稷主, 受國不祥, 是謂天下王. 正言若反.

5. 결론

한국은 소득 불균형의 심화와 계층간 불평등 확대와 같은 다양한 경제·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야기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회 갈등 요인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사회통합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노자의 사상은 춘추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사상은 수천년이 흐른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사회통합과 같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갈등해결사는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 속의 이상적 인간상인 물의 속성을 닮아 ‘道’를 체득한 ‘聖人’이 바로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해결사의 모습은 첫째, 성인(또는 현인이나 현자)은 공적이고 보편적 이익과 이치에 부합되며, 기존의 부조리한 현실사회나 타락한 인간이나 잘못된 가치관을 부정·비판할 수 있기에 사회문제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자는 어린아이의 특성으로 성인을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욕망으로 다투지 않고 상호간 어울리며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노자는 “높은 경지의 ‘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물과 같다”라고 말하며 ‘聖人’을 물에 비유하였는데, 물은 하늘부터 땅까지 모두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곳에든 담기고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존재이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마치 높은 경지의 ‘善’을 지닌 사람과 닮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善’이 물과 같다는 것은 바뀔 없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갈등해결사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창경(2016). 혈구지도(繫矩之道)를 통한 다문화사회 소통·융합의 예(禮)실천방법 연구, <유학연구>, Vol.36, 507~533쪽.
- 김현우·이미림(2017). 유교를 통한 한국적 다문화사회 구상 - 화(和)·대동(大同)·효(孝)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Vol.38, 273~297쪽.
- 노자 지음·김학목 옮김(2012).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註)』, 홍익출판사.
- 박원재(2004). 「'성인'과 '백성'- 노자의 수양론의 두측면」, <중국철학>, 제12권, 5~31쪽.
- 왕필 지음·임재우 옮김(2005). 『왕필의 노자주』, 한길사.
- 이재권(2022). 노자 철학에서 깨달은 사람의 모습과 그 삶의 방식, <동서철학연구>, 제105호, 5~41쪽.
- 이현지(2013). 『주역』 정鼎괘를 통한 한국 다문화사회 문제해결 방안, <사회사상과 문화>, Vol.27, 동양사회사상학회, 253-279쪽.
- 정영호·고숙자(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승표(2008). 『주역』과 한국 다문화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 <한국학논집>, No.47, 369-397쪽.
- 법무부, 체류 외국인현황, (검색일: 2023.06.01.)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2021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검색일: 2023.05.22.) <https://www.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2155&code=0404&trendType=CKOREA>
- 한겨레(2021). 「한국 '갈등 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인구밀집도는 심각」, (검색일: 2023.05.19.) 2021.08.19.,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8235.html
- 한국행정연구원(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검색일: 2023.05.22.)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ReList.do?seSubCode=BIZ017A001>
- 老子道德經注, (검색일: 2023.05.01.) http://db.cyberseodang.or.kr/front/alphaList/BookMain.do?tab=tab1_01&bnCode=jti_3n0401&titleId=C7
- 王弼(魏), 《道德真經注》 道藏12, 上海書店出版社, 1996.

필자 소개

성 명 장지혜

소 속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외국어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282-1 [우편번호]48440

전자우편 leslie1987@nate.com

Abstract

Causes and Alternatives to Conflicts in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Laozi's Philosophy

Jang, ji-hye
(Semyung University)

The study focuses on proposing Laozi's philosophy to understand the causes of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nd presents a solution centered around the role of a leader and the qualities required for conflict resolution in multicultural settings. 1. Understanding the Causes of Conflicts: The study examines the causes and types of conflicts in Korean society. By drawing on the ideas of 『daodejing』, it aims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auses of conflicts, including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conflicts within multicultural societies. 2. The Role of a Leader in Multicultural Conflict Resolution: From a philosophical standpoint, the study analyzes the required social spirit to solve the conflicts arising in multicultural societies. It suggests that the resolution of conflic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ecessitates the presence of a leader at the forefront. 3. Ideal Leadership Model: By delving into Laozi's teachings, particularly concepts like the 'saint' and 'goodness,' the study examines the qualities and attitudes tha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executives, working to address and solve these conflicts, should possess. Laozi's teachings are presented as a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conflicts, Causes of multicultural society conflicts, Solutions for resolving multicultural society conflicts, Conflict resolution experts, Laozi 's philosophy